

중국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2. 2.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9
IV. 국제신인도	12
V. 종합의견	15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I. 일반개황

면적	960만 km ²	G D P	7조 2,998억 달러 (2011년)
인구	13.4억 명 (2011년)	1 인 당 GDP	5,419달러 (2011년)
정치체제	사회주의 인민공화제	통화단위	元 (RMB)
대외정책	전방위 실리 외교	환율(달러당)	6.46 (2011년 평균)

- 중국은 한반도의 43배에 이르는 넓은 국토를 가진 국가로 전체 인구의 92%를 차지하는 한족 외에도 55개의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음. 석탄, 석유, 철광석 등의 천연자원과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으로 1978년 개혁개방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음.
- 1978년 덩샤오핑(鄧小平)의 선부론(先富論)의 기치 아래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한 개혁개방을 추진함으로써 지역 간 불균형이 초래됨. 이에 균부론(共富論)으로 경제발전을 전환하여 소외되었던 서부지역, 동북지역에 이어 중부지역의 도약을 추진하고 있음.
- 특히 2002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이 등장한 이후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경제정책 기조를 종전의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하였고, 산업구조 고도화, 환경규제 강화, 에너지원 확보 등의 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 중임.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 대외수요 감소에도 높은 성장 지속

- 2011년 중국 국내총생산액(GDP)은 47조1,564억 위안(7조 2,998억 달러)으로 전년 대비 9.2% 증가하여 2010년보다 1.2%포인트 하락함.
 - 최대 수출시장인 유로존의 재정위기로 대유럽 수출증가율이 10%포인트 가까이 급락해 18.3%를 기록함에 따라, 중국 전체 수출증가율도 20.3%로 3년 연속 하락함.
 - 2011년 중국 고정자산투자액이 전년 대비 23.8% 증가하며 30조1,933억 위안을 기록하는 등 투자가 성장을 이끌었으며, 소매판매 총액이 17.1% 증가하여 소비도 성장에 기여함.
- 견고한 투자와 소비를 바탕으로 2012년에도 8%중반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다.

□ 사회복지 확충과 신흥산업 육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소폭 확대

- 신흥산업 육성, 인프라 투자, 지역 간 소득격차 해소 등을 위한 지출이 전년 대비 21.2% 증가한 10조 8,930억 위안을 기록함.
- 2011년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가 전년대비 0.2%포인트 증가한 1.8%를 기록하였으며, 2012년에도 교육, 의료 등의 사회복지 제도 확충으로 재정 적자가 2.2%로 증가할 전망이다.

□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물가상승 압력 다소 완화

- 소비자물가상승률이 2011년 농산물 수급불안과 식료품 가격상승 등으로 7월에 6.5%까지 치솟았으나, 지급준비율 인상과 금리인상 등으로 12월에는 4.1%를 기록하였으며, 연중 상승률은 5.4%를 기록하였음.
 - 물가급등의 주요 원인이었던 식료품 가격 안정으로 2012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이 3.5% 수준으로 진정될 전망이다.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단위: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e	2012 ^f
경제성장률	9.6	9.2	10.3	9.2	8.4
재정수지 / GDP	-0.8	-2.7	-2.1	-1.8	-2.2
소비자물가상승률	6.0	-0.7	3.2	5.4	3.5

자료: IMF, EIU.

2. 경제 구조 및 정책**가. 구조적 취약성****□ 지역간, 도·농간 빈부격차가 큰 편**

- 2000년부터 균형발전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전히 지역간, 도·농간 빈부격차가 축소되지 않고 있음.
- 중국의 도농 소득격차는 세계 최대 수준으로, 2011년 도시지역 주민의 연간소득이 농촌 주민보다 3.12배 많음.
- 대도시가 몰려 있는 동부 연안 지역의 2010년 1인당 GDP는 5,078달러인 반면 중부는 2,806달러, 서부는 2,447달러 수준에 불과함.

□ 사회안전망 미흡으로 소비보다는 수출과 투자가 경제성장 주도

- 중국의 민간소비는 GDP의 35%로 미국(70.7%), 일본(57.1%), 인도(55.1%), 한국(54.7%) 등에 비해 현저히 낮음. 이는 사회안전망 미비로 수입의 대부분을 저축하기 때문임.
- 최근에 중국은 대외수요 위축에 따른 수출 둔화로 경제성장률이 저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금, 의료 등 보험제도 확충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정비하고 있음.

□ **자원다소비와 심각한 환경오염으로 지속가능한 성장 저해**

- 미국에너지정보국(EIA)에 따르면 중국의 원유소비는 1일 939만 배럴로 미국(1,977만 배럴)에 이어 세계 2위이며, 석탄 소비는 세계 1위임. 또한 과도한 화석연료 사용으로 연간 미국의 1.4배에 달하는 77억 톤의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있음.
- 환경오염으로 전국의 강·하천의 70%가 오염되었으며, 이 가운데 40%는 기능을 상실함.
- WHO(세계보건기구)가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도시별 미세먼지가 38~150 μm 달해, 인도(36-251 μm), 이란(70~372 μm), 파키스탄(181~251 μm), 몽골(279 μm) 등과 함께 미세먼지농도가 높은 국가로 분류됨.
 - 우리나라 49~64 μm , 미국 6~38 μm 임.

나. 성장잠재력

□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구조조정 추진**

- 투자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해소하고,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성장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산업 구조조정을 추진함.
 - 2011년 ‘산업구조조정 목록’을 발표하여 국가 주요산업을 ‘장려’, ‘제한’, ‘폐기’ 등으로 구분함. 경쟁력을 높여야 할 분야는 ‘장려’에, 낙후설비의 개선이 필요한 분야는 ‘제한’에, 과잉 생산으로 퇴출이 필요한 분야는 ‘폐기’에 포함됨.
 - ‘폐기’업종에 대한 금융기관의 여신지원을 중지하고, 기 발생한 대출금을 회수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책을 마련함. 선박, 폭약제품 등 426개 업종이 포함됨.
- 토지공급, 환경, 안전 등의 기준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신규진입을 억제하기도 함. 동 기준의 적용으로 철강·시멘트 산업에 대한 신규진입이 2010년부터 차단됨.

□ 현지시장 진출을 위한 지속적인 FDI 유입

- 환경오염 유발산업 및 저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M&A 요건을 강화하는 등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으나, 첨단기술산업, 서비스산업 등 현지시장을 겨냥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음.
- 현지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투자가 2006년 129건, 8억 8,600만 달러에서 2010년 1,239건 17억 6,900만 달러로 급증하여 2010년 전체투자의 55.9%를 차지함.

□ 첨단기술제품 중심으로 수출상품의 고도화 진행

- 중국의 2011년 10대 수출품은 자동데이터처리기, 전자통신부품, 선박, 반도체, 집적회로, TV, LCD 및 광학기기, 프린터, 전자변압기 및 변환기로 과거 의류봉제업에서 전기전자 및 기계류로 수출품목의 변화가 두드러짐.

다. 정책성과

□ 물가안정을 위한 긴축통화정책 추진

- 물가안정을 위해 2011년 한 해동안 기준금리 세 차례, 지급준비율 일곱 차례 인상으로 2011년 12월에 물가가 전년 동기대비 4.1% 하락함.
- 물가가 안정되자, 경제성장 둔화를 우려하여 2011년 12월 지급준비율은 0.5%포인트 인하하여 대형은행과 중소형 은행에 대해 각각 21%, 17.5%로 조정함.
- 물가상승률이 하락하고 있으나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2012년에도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할 전망이다.

□ 강도 높은 부동산 규제로 201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 가격 하락 지속

- 2011년 2월 무주택자에 대한 금리 혜택을 폐지한 데 이어 11월에는 부동산 대출 금리를 7.75%로 3.45%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규제 지속

- 부동산 가격(주택 및 상업용 건물)이 2010년 2월 전년 동월대비 34.8%까지 상승하였다가 2011년 들어 오름세가 둔화되었으며, 9월부터 4개월 연속 하락함.

□ 수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내수확대 정책 추진

- 중국은 소득 재분배, 내수경기 부양 등을 목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12차 5개년 계획(2011-2015년) 기간 동안 최저임금을 연 평균 13% 올리기로 확정하고, 2011년 22% 인상함.
- 또한, 소비확대를 위해 개인 소득세 면세기준과 기업 증치세(부가가치세) 및 영업세 면세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감세 정책을 마련함.
 - 개인 소득세 면세기준 2011년 9월부터 월 2,000위안 → 3,500위안
 - 기업 증치세 및 영업세 면세기준 2011년 11월부터 최대 5,000위안 → 최대 20,000위안
-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비부양을 위해 농촌 자동차구매 보조금 지급과 가전 보조금 지급을 시행하였으나 2011년 2월 소비보조금 정책이 전국적으로 만료됨. 이에 따라 금년에 대외수요 위축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소비보조금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임.

□ 풍부한 외환보유고를 바탕으로 해외투자 촉진

- 중국정부는 해외 M&A를 적극지원하고, 자국민의 해외자산투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외환보유액을 통한 민간 부문의 수익증대를 꾀하고 있음.
 - PwC(Price Waterhouse Coopers)에 따르면, 2011년 중국 기업의 해외 M&A거래 건수와 금액이 207건과 429억 달러로, 200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 외환관리국이 개인의 연간 매입가능 외화한도(5만 달러 이하)를 점진적으로 상향조정하기로 하는 등 엄격히 통제되어 왔던 자본계정에도 완화가 추진되고 있음.

□ 빈곤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 1981년 전체 인구의 65%에 달했던 절대빈곤층(세계은행 기준 일일 소득 1.25달러)이 개혁개방에 따른 고속성장으로 2004년 이후 10%까지 감소함.
- 중국정부는 기존 연소득 1,274위안 미만 빈곤층에게만 지급했던 빈곤 지원금을 2011년 1월부터 연소득 2,300위안 미만 빈곤층에게도 확대하는 등 빈곤퇴치 지속

3. 대외거래

□ 대외수요 위축에 따라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폭이 대폭 감소

- 선진국 경기침체에 따른 수출감소와 농산물 작황부진으로 인한 수입증가로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에 비해 14.5% 감소하여 1,551억 달러를 기록함. 이에 경상수지 흑자도 1,611억 달러로 36.6% 감소함.
- 해외여행 급증과 법률·컨설팅 등 고급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로 서비스 수지 적자가 546억 달러로 크게 증가함.
- 외환보유고 이자수입 등으로 소득수지가 4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며, 해외근로자 송금 등으로 이전수지도 447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함.
- 1,2위 수출시장인 유럽과 미국의 경기침체로 수출감소가 불가피하여 2012년에도 상품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규모 증가는 어려울 전망이다.

□ 세계경기 침체로 자본유입이 감소하여 외환보유액 증가율 둔화

- 2011년 말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1,811억 달러로, 전년대비 10.5%증가하는 데 그침.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0월 3조 2,738억 달러까지 증가하였으나, 이후 두 달간 약 927억 달러가 감소함.
- 이는 선진국 재정위기로 국제자본이 본국으로 회수됨과 함께 경기침체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현상이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위안화 가치의 점진적인 상승 지속

- 중국이 점진적이고 완만한 환율 하락세를 유지하여 2011년 말 위안화 환율은 6.31위안을 기록함.
- 경상수지 흑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다 대외수출 여건이 악화되고 있어 2012년에도 급속한 환율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보임.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07	2008	2009	2010	2011 ^e
경 상 수 지	371,833	436,107	297,142	305,400	161,100
경 상 수 지 / GDP	10.6	9.6	5.9	5.2	2.2
상 품 수 지	315,382	360,680	249,513	254,200	155,200
수 출	1,220,000	1,434,600	1,203,800	1,581,400	1,898,600
수 입	904,618	1,073,920	954,287	1,327,200	1,747,400
외 환 보 유 액	1,530,282	1,949,260	2,416,044	2,847,000	3,181,150
총 외 채 잔 액	389,200	390,200	428,700	472,700	516,800
총 외 채 잔 액 / GDP	11.1	8.6	8.6	8.9	7.1
D S R	2.2	2.0	2.3	1.9	1.7

자료: IFS, EIU.

□ 양호한 외채상환 능력

- 2011년 말 총외채잔액은 5,168억 달러로 절대규모가 큰 편이나, GDP대비 7.1%에 불과하고 외채원리금 상환비율(DSR)도 1.7%로 안정적인 수준임.
- 2012년에도 수출증가율 둔화가 지속되어 DSR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안정

□ 2012년 말 지도부 교체가 예정되어 있으나 정치적 안정은 지속될 전망

- 2002년 11월 중국 공산당 제16기 전당대회에서 후진타오가 국가주석 겸 공산당 총서기로 선출된 이후, 원자바오 총리와 함께 정치적 안정을 이끌고 있음. 후진타오는 국가발전 전략을 기존의 선부론에서 균부론으로 전환하였고,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함.
- 2012년 10월에 열릴 공산당 제18기 전당대회에서 권력교체가 진행될 전망이다. 새롭게 선출될 9명의 상무위원 중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과 리커창(李克強) 부총리가 각각 총서기와 총리에 오를 전망이며, 통산 중국의 지도부가 합의하에 탄생되는 만큼 지도부 교체로 인한 정국혼란은 없을 전망이다.

2. 사회안정/소요사태

□ 빈부격차와 높은 실업률이 잠재적 불안 요인

- 외형상의 정치적 안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 심화, 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실업자 증가가 사회불안 요인으로 분석됨.
- 국가통계국은 2011년 도시지역 실업률을 4.1%로 발표하였으나, 농촌지역 거주자와 구직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계산되지 않아 실제 실업률은 더 높은 것으로 추정됨.

□ 정부 관료의 비리문제가 아직도 심각

- 중국은 2010년 12월 '반부패와 청렴정치 건설백서'를 발간하는 등 부패와의 전쟁을 지속하고 있음. 2011년 4,843명의 관리가 기율위반으로 적발되어 777명이 처벌되었으며, 고위공무원의 뇌물수수과 비리는 사형으로 엄중히 처벌함.

- 그러나 2012년 국제 투명성 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비리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중국은 평가 대상국 183개국 중 75위로 여전히 정부 관료의 부패문제가 심각함.

□ **강경대응에도 산발적인 소수민족 독립운동 지속되나 대규모 사회불안 가능성 희박**

- 2008년~09년, 종교탄압과 소수민족 차별에 반발하여 자치권 확대와 분리독립을 주장한 티벳 족과 위구르 족 시위가 진압된 이후 대규모 시위는 발생하지 않음.
- 그러나 2011년 7~8월 신장에서 발생한 위구르 족의 파출소 습격사건 진압과정에서 위구르 족 14명이 사망하고, 2012년 종교의 자유를 주장하는 티벳 족의 시위에 대한 무력진압으로 3명이 사망하는 등 유혈사태가 지속되고 있음.
- 시위가 대도시가 아닌 교외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여 조직적인 반정부시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어 시위로 인한 체제전복 가능성은 미미함.
- 중국정부는 시위 강경진압과 함께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등의 미디어 통제를 강화하고, 시위 발발 지역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늘리는 등의 회유책도 함께 펼치고 있음.

3. 국제관계

□ **환율문제와 관세보복 등으로 미국과의 무역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

- 미국은 대 중국 상품수지 적자 해소를 위해 위안화 절상 속도를 높이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은 환율이 주권 문제라고 주장하며 점진적인 절상을 지속함.
- 2011년 11월 이후 미국의 중국산 태양광 패널에 대한 덤핑 및 보조금 조사를 시작으로, 양국 간 무역 갈등도 재연되고 있음.

- 태양광 패널에 대한 조사요구에 중국정부와 기업들이 불응하자, 미국은 12월 중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를 위한 WTO에 패널 구성을 요청하고, 중국산 철강 실린더에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함.
- o 최근 WTO는 미국과 유럽이 제소한 채널 심의에서 중국이 수출 관세부과로 형식·인 등 원자재 수출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켜 국제 무역 규약을 위반했다는 평결을 내림.

□ 역내 영향력을 높이려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확대

- o 중국은 2010년 1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자유무역협정을 발효하는 등 FTA를 통한 경제통합을 구상해왔으나,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를 추진하고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잇따라 이에 참여할 뜻을 밝힘에 따라 중국을 중심으로 한 경제통합 전략이 순탄하지 않을 전망
- 특히 미국은 일본, 캐나다, 한국 등과 논의를 지속하는 한편, 지적재산권 확립과 환율조작 금지 등 중국을 겨냥한 의무규정을 내세우며 중국에 적극적인 참여요청을 하지 않고 있어 미국이 TPP를 중국 견제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 마잉주 총통 당선 이후 대만과의 관계는 지속적으로 개선

- o 2008년 대만총통으로 당선된 마잉주(馬英九)가 금년 1월 선거에서 다시 승리함으로써 중국과의 관계개선은 지속될 전망이다.
- 2010년 7월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PA)가 체결됨에 따라 대만제품의 중국 수출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등 경제통합이 가속화됨.

□ 러시아·중앙아시아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자원 외교 활발

- o 러시아와 2008년 10월 국경분쟁을 타결한 이후, 2010년 9월, 러시아-중국 간 송유관을 개통하며 우호관계를 확대함.

- 2009년 12월에는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을 경유하여 중국 남부 연안지방까지 연결되는 가스관이 개통되어 가스공급이 시작됨.
- 대 아프리카 자원외교도 활발히 추진하여 대부분 아프리카 국가와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며 자원과 시장확보에 적극적
 - 중국의 전체교역에서 아프리카가 차지하는 비중은 4%로 미미하지만, 아프리카입장에서 중국은 미국을 초월하여 아프리카의 최대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대외지급 능력 양호

- 경상수지 흑자와 외국인 직접투자 증가 등으로 2011년 말 외환보유액이 3조 달러를 상회하여, 월평균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이 17.5개월로 대외지급능력이 양호함.

□ 양호한 외채상환 태도

- 리스케줄링, 연체 경험 없음

2. 국제시장평가

□ 신용평가기관의 높은 국가신용등급 유지

- 중국은 고도 경제성장, 풍부한 외환보유액 등을 바탕으로 높은 신용등급을 유지하고 있음.
 - Moody's는 2010년 11월, S&P는 2010년 12월에 각각 Aa3, AA-로 신용등급을 상향조정함. 이는 금융위기이후 빠른 경제회복, 막대한 외환보유액, 양호한 대외지급능력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주요 ECA의 인수태도 양호

- 미국(EXIM) : 전액 인수 가능
- 영국(ECBD) : 전액 인수 가능
- 독일(Hermes) : 단기 전액 인수 가능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수출입은행	B1 (2011. 6.)	B1 (2010.10.)
OECD	2등급 (2011. 3.)	2등급 (2010. 4.)
S&P	AA- (2010.12.)	A+ (2008. 7.)
Moody's	Aa3 (2010.11.)	A1 (2009.11.)
Fitch	A+ (2011. 4.)	A+ (2007.11.)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2년 8월 24일(북한과는 1949년 10월 6일)

□ 주요협정: 무역, 투자협정(1992년), 문화협정, 이중과세방지협정(1994년), 원자력협정, 세관협력협정(1995년), 복수사증협정(1998년), 어업협정(2001년), 투자증진 및 보호협정('07) 등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표 4> 한·중국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대 중국	2009	2010	2011	주요품목
수 출	86,703	116,838	134,205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등
수 입	54,246	71,574	86,426	반도체, 컴퓨터, 철강관 등
합 계	140,949	188,411	220,631	

자료: 한국무역협회.

□ 중국과의 교역에서 상품수지 흑자 지속

- 교역규모는 2011년에 2,206억 달러를 기록하였음. 우리나라의 수출은 전년보다 12.9%증가한 1,342억 달러, 수입은 17.2%증가한 864억 달러로, 1993년 이후 지속적인 상품수지 흑자를 기록함.
- 우리나라의 대 중국 수출품은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 반도체, 합성수지 등이고, 수입품은 반도체, 컴퓨터, 철강재 등임.
 -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 품목은 중국 수출품목과 동조화 현상을 보이는 데, 이는 우리나라 수출품목의 50% 이상이 중국에서 가공되어 재수출되는 데서 기인함.

□ 중국은 우리나라의 제2위 투자대상국

- 우리기업의 대 중국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2011년 9월 말 기준 약 359억 달러(투자 누계기준)로, 미국(374억 달러)과 근소한 차이로 2위를 기록함.
 -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총 투자금액의 79.5%로 가장 많고,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0.5%), 도매 및 소매업(5.4%), 운수업 (1.2%) 등임. 제조업 중에서도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음향 등 IT 분야(29.7%)가 주를 이룸.
 - 투자 지역별로는 여전히 동부 연해지역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서부지역의 투자비중은 2.8%로 미미한 수준임.
 - 투자 목적별로는 현지시장 진출이 가장 큰 비중(46.6%)을 차지함.

V. 종합 의견

- 2011년 중국경제는 고정자산 투자증가, 적극적인 정부지출, 소비확대 등으로 9.2%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대외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견고한 투자와 소비로 2012년에도 8%중반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물가상승률이 하락하면서 대외수요 감소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경제 경착륙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정치적으로 지역간, 도농간 소득격차, 부정부패, 소수민족의 독립요구 등 사회불안 요인이 잠재하고 있으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며, 중국 정부는 사회복지제도 확충을 통한 사회안전망 구축, 최저임금인상과 균형발전 등을 통해 사회안정을 도모할 것으로 예상됨.
- 지속적인 고도성장과 풍부한 외환보유액 및 양호한 외채상환태도를 바탕으로 외채상환불능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조사역 강 수 연 (☎02-3779-5716)
E-mail: sykang@koreaexim.go.kr